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33)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차나 한잔 들지

저는 매사 격식보다 태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차도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이 좋습니다. 찻잔에서 차의 종류, 그리고 마시는 법도까지 다 그렇습니다.

내가 마시는 차
저는 다기를 갖추어 쓰지 않습니다. 세트
를 한번 써 본 적이 있는데, 좀 번거롭고 형
식적이다 싶어 작파했습니다. 대신, 날씬한
대접 위에 쇠로 된 거크를 걸쳐 놓고, 거
기 차를 얹은 다음, 전기 포트에서 끓여낸
물을 붓습니다. 간편하기 이를 데 없지요.
제가 쓰는 찻잔은 좀 독특합니다. 다기용
찻잔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몇 번씩 나
누어 마셔야 하는데, 늘 그제 좀 번거롭고
감질했습니다. 그렇다고 커피용 머그잔은
너무 크고 위압적(?)이어서 불만인 차에,
그 중간 크기의 컵을 광주 도자기전을 들다
가 발견하고, 이거다 하며 환호했습니다.
높이는 머그의 반쯤이고, 찻잔의 두 배쯤입
니다. 이 컵의 묘미는 바닥은 편평하고 입
구가 두툼한데 있습니다. 마시기도 좋고,
씻기도 너무 편합니다. 커피를 마셔도 좋고
녹차를 따라도 좋습니다. 손이 쏘옥 들어가
고 폼이 넘버하니 행구어내는데 응을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이 인체공학적 다자
인이 좀 널리 일반화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차를 좀 잡스럽게 마십니다. 연구실
책꽂이의 쪽이 넘버하여 거기 여러 차를 늘
어놓았습니다. 제가 산 것도 있고, 누가 준
것도 있습니다. 둘러보니, 세계 차의 작은
박람회 같습니다.
아, 참, 화엄(華嚴)의 본래 이름이 잡화(雜
花)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있나오. <화엄
경(華嚴經)>은 본래 <잡화경(雜花經)>, 즉
'허접한 꽃들의 축제'라는 이름을 달고 있
었습니다. 그게 좀 상스럽고 품위가 떨어지
다고 이름을 바꾼 모양인데, 저는 이 쪽거(?)
를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체가 평등(平等)하여 높낮이가 없는 판
에, 매난국죽(梅蘭菊竹), 귀하거나 품위 있
거나 우아한 꽃이 따로 어디 있었습니까.
저마다 저 나름대로 피고, 그 핀 자체와 향
기가 모여 한바탕 축제를 이룬 잡화엄식(雜
花嚴飾)이 이 세상의 풍경임을, <잡화경>
은 웅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못났다 하
여 기죽지 말고, 옳다 하여 절망하지 말고,
잘났다고 뻔뻔해지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는 삶을 이루십시오.
서가에 늘어진 잡차(雜茶들), 거기 특별한

명품은 없습니다. 학생이 준 유기농 녹차,
강원도산 머루차, 슈퍼에서 산 모과차, 영국
에서 온 아마드 홍차, 대만 학화 갔을 때 사
은 웰관음과 오롱차, 중국 학자가 준 재스
민과 보이차가 있습니다. 커피도 일회용 믹
스와 카푸치노에, 필터로 걸러먹는 차에, 설
탕 크림에 타먹는 분말 커피도 있습니다.
손이 주로 가기는 녹차와 커피이고, 나머
지는 별식으로 마십니다.
무엇을 마실지 정해둔 바는 없습니다. 마

하거나 풍만하지 않고, 오롱차처럼 둔탁하
고 무겁지 않습니다. 그 맛은 약간 달고 터
프하면서도 달고 시원합니다.
역수보다 위로 가면, 달고 터프한 맛이
줄어들고, 그보다 아래로 가면 달고 시원한
맛이 떨어집니다. 거기다 금삼철화, 가격도
적절하고, 구하기에 까다롭지 않습니다.
결, 주머니 사정이 그 정도인데, 저도 잘 모
르는 소리를, 고상하게 헛갈리게 하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맨 단숨에 한 잔을 들이키고는 더 이상 찻
잔에 손대지 않습니다. 차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든가,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다는
가, 찻값의 고하를 들먹이기 시작하면 차가
묵직하게 가슴에 걸려 넘어가지 않습니다.
차의 이력을 줄줄이 꿰며, 옛적의 다인들의
행적을 늘어놓으면, 차 맛을 느껴야 할 신경
이 귀로 이동해버립니다.
차에 '관한' 얘기는 입맛을 돌을 정도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식을 자랑하거나 차

조주 스님에게 객승 하나가 와서 물었습
니다. "도(道)가 무엇입니까?" "차 한 잔 들
게(喫茶去)." 너무 자주 들어 식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계사 옆 찻집 하나가 이
이름을 달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꼭다거", 아 참, 여기 거(去) 자를 심각하게
해석해서, "차나 한잔 하고 가자"라고 새기
시는 분이 있는데, 이 글자는 동사의 방향
을 일러주는 보조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차를 마시기 위해서 찻잔
쪽으로 뺨은 손을 함축하고 있다고 말면 대
충 비슷합니다. 정통 한문에서는 어림도 없
는 용법이지만, 당송 이후의 구어체와 거기
서 발전한 현대 중국어에서 빠질 수 없는
글자입니다.

道는 차 한 잔에 있다



음이 안으로 향할 때는 고즈넉한 녹차가 좋
고, 마음이 사람들과 더불어 있을 때는 진
득한 커피가 좋습니다. 비가 내리거나 우울
할 때는 따뜻한 커피가 좋고, 날씨가 덥고
회의가 길어지고 잡생각이 많을 때는 차가
운 녹차가 좋습니다. 한문에 짓을 때는 녹
차에 손이 가고, 영어를 따라갈 때는 어느
새 커피를 타고 있습니다.
커피도 녹차도 굳이 고급을 찾지 않습니
다. 너무 저급하여 맛이 탁하지 않으면 좋
습니다. 너무 비싼 차는 부담스럽습니다. 가
격도 가격이지만, 맛이 너무 섬세하면 부러
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차
도 거칠고 투박한 맛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녹차 가운데 제가 제일로 치는 것은 설록
차 역수입니다. 역수는 색깔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우려나 진하지도 않고, 너무 얇
어 맛없지도 않습니다. 그 비취빛 색깔이
심산의 맑은 연못 같아서 별세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맛도 재스민처럼 화려

빈 마음으로 우려, 빈 마음으로 권하는 차
저는 차를 마시는 법도도 까다롭게 따지
지 않습니다. 매사 자연스러운 것이 좋지
요. 주인된 사람은 손님이 차를 의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
맛을 알기 위해서도 그렇고, 마음을 나누는
데도 그렇습니다.
주인이 다도를 운운하며 까다롭게 따지
면, 차 맛이 저만큼 달아나 버립니다. 그럴

빈을 두려는 권위의식이야말로 차 맛을 버
리는 원흉 아닐까요. 아, 그 '정보'와 '권
위' 사이의 경계가 말의 다과(多寡)에 있지
않다는 것은 말에 두어야겠습니다.
말을 아무리 해도 번잡하지 않을 때가 있
고, 한 마디 말도 덜컥 너무 무거울 때가 있
습니다. 그 섬세한 차이는 역시 '마음'에
있다 싶습니다. 그 경계를 이거라고 말로
짚어주기는 어렵지만...
■한국학중앙연구원

신선이 마시는 갈로
어쨌거나,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으면 도
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울 것 같아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차 한 잔 마시기가 어
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분노와 슬
픔을 타서 차를 마시지 않을 때가 드물고,
내 예고와 권위를 타서 차를 권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차를 '빈 마음'으로 우려, 빈 마음으로
권할 때 거기 모든 것이 있습니다. 공(空)이
라, 무심(無心)은, 당연, 쉬운 일이 아닙니
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
다. 내가 내 마음의 불순물로 탁하게 오염
시킨 차를 뻔뻔스럽게 내놓고 있다는 파렴
치를 알기만 하면, 차 맛은 훨씬 좋아질 것
이니, 그 갈로수를 마시는 사람은 단박에
신선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주장사파라...

56 임제 선사의 '눈물'



조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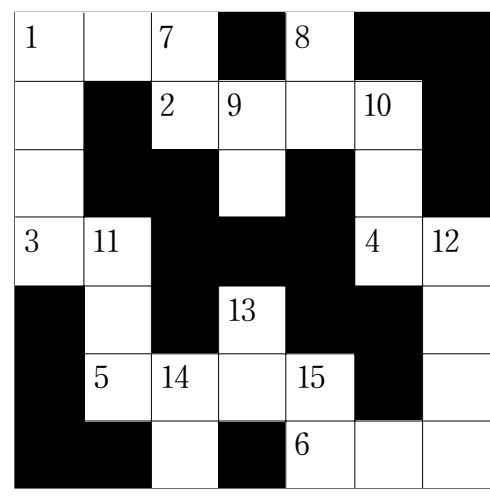
임제 의현(?-867): 당나라 스님. 황벽 스님에게 법을 받았다. 하북성 임제원에서 후학을 지도했으며 혜연·연소 스님 등 22명에게 법을 전함.

네티즌 교리문답

'이렇고' 화두는 어떤 것인지?

화두공안이 참으로 많습니다. 흔히 말로 1700공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이렇고' 화두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자는 "이'만 비르게 의식하면 '렇고'가
필요 없다" 하는데, 이 말이 맞는 것입니까? (불학자)
답1: '이렇고' 하는 화두에서 '이'는 처음에 '마음이 무엇인고?', '이 무엇인고?' 두 가지
로 하다가 의심이 잡히면 '이렇고'로 통일하면 됩니다. 의심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언
인고?'라는 것은 의심의 표시니까 '이'해서 의심이 생기면 '렇고'가 같이 곁들여 있는 것임으
로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초보자가 잘 되지 않으니 '렇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희미해지면 안 되니까 가끔 '렇고'도 넣어야 됩니다. '이렇고', '렇고'하는
그놈이 무엇인고?를 반복해서 의심을 잡아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하기 전을 찾으면 안
됩니다. '이'하는 그놈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금강소석)
답2: 아직 '이'를 비르게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질문입니다. '렇고?'는 물려서 무엇인
가를 의심한 일입니다. '렇고'가 필요 없다는 것은 의심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일면 틀린
것입니다. 이미 의심을 잘해나가는 데 있어 단어 자체 '렇고'는 빼도 됩니다. '이'만 하더라도
내용에 있어 '이'하는 놈이 '렇고?'하며 의심을 일으키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글로써 정신작용을 표현하기 어려우니 적지 않아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사실
'이렇고'가 실제로 되어가는 사람에게는 이미 굳어지기 일입니다. 반면 그렇지 않고 의심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헤매기 심상입니다. 글귀에 집착해 '마음이 무엇인고?' 하다가
'이렇고'로 통일하고자 고집하면 조각된 의심이 되기 쉽습니다. 다만 '이렇고'의 화두는 '이'
하는 이놈의 의심이 드느냐 안드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의심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
른 자세)
답3: 옛사람들이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경험한 공부를 설명하다보니깐 말이 필
요해서 '이렇고'가 나왔다고 봅니다. 화두 공부 길을 터득한 사람은 별다른 말이 필요 없지
만, 처음 한 사람이 '이렇고'를 배워서 하려면 아득할 따름입니다. 조각해서 '이렇고' 해봤자
누가 이 지루한 공부를 해보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고'라는 말은 선가의 문
화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맞을 것입니다. (선정)

부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1. 항생물질로 된 약제로 흔히 마이신 또는 페니실린으로 불림 2. 아내 또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을 지냄 3.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정해지는 관계에서 X에 대하여 Y를 이르는 말 4.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로 인두와 위사이의 긴 관 5. 구상이 크고 줄거리가 복잡하며 양적 우위인 소설 6. 우주의 진리를 인격화한 부처로 비로자나불을 뜻함.

1. 비행기를 신고 발착시킬 수 있는 군함 7. 해군장성에 대한 통칭 8. 부처님 앞에 공양하는 일 10. 문자에 어떤 특정한 수를 대입할 때만 성립하는 등식 11. 대결문이나 성문을 지키던 장수 12. 밤에 무덤이나 고목 등에서 인(隣)의 작용으로 번쩍이는 푸른 빛 13. 강타하면 즉시 졸도하거나 죽게 되는 위험한 부위 14. 보기에 편리하도록 간편하게 만든 책 15. 교리·종지를 신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경전 등을 풀어 이야기하는 행위.